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 만들기-

임병조*

Construc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Institutionalization: Making 'Nae-Po' Region Reflected in Hong-Seong Times

Byoung-Jo Leem*

요약 : 오늘날의 지역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역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관성, 차이, 권력관계 등은 오늘날 지역의 구성과정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정체성'이다. 지역정체성은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형성과정이 곧 지역의 구성과정이다. 지역신문은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홍성신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지역의 구성과정과 여기에 작용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입장 및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포에서는 제도화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군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의 구성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어 : 정체성, 영역적 형상, 상징적 형상, 제도, 제도화, 지역의 구성

Abstract : Nowadays, a region is mainly constructed by a variety of subjects intentionally.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the region reflecting the standpoint of various related subjects pertinently to understand today's region. Subjectivities, differences, and power relations are representative element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region. And the inclusive concept of these elements is the term of 'regional identity'. The regional identity is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is process of building identity i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region. The local newspaper is a representative one of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erves as an important clue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region in Korea. I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standpoint and influence of the various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region through the articles in Hong-Seong Times. According to this study,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ve proceeded very actively in Nae-po region. But it is likely that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ve not reached to the stage of constructing region.

Key Words : identity, territorial shape, symbolic shape, institutions, institutionalization, constructing the region

*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강사(Teacher, Cheonan Wolbong High school, Lecturing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mbkh@hanmail.net

1. 서론

세계화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보편화, 표준화 물결은 많은 부분 지역 간의 외형적 차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지역 간 물자 및 정보 유통의 증대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실제로 지역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보편화, 표준화의 물결은 역설적으로 차별성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지역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사회적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공간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용웅 등, 2003). 지역의 문화나 상징을 활용하여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다(이정훈, 2008). 지역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강화, 재생산함으로써 관련 주체의 의도에 따라 지역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홍성훈, 2001).

지역의 구성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이다. 지역 정체성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지역의 제반 특성'이라고 본다면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인 정치·경제·문화적 특성들을 주민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를 지역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근식, 1997). 이러한 지역정체성이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것을 의제로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지식 관계 및 분리와 배제의 논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과정, 즉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Amdam, 2000).

이처럼 지역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과정, 곧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지역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구성원이나 관련 주체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향토연구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전문학술연구단체, 지역언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구성과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과 역할을 분석해 보면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입장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지역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행정 및 정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관의 업무활동을 감시하며, 비판적 보도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석훈, 1998). 이처럼 지역신문은 지역 내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입장과 역할은 지역신문을 통하여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은 지역의 정보를 유포, 확산시킴으로써 기존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때로는 고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장소의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영민, 1999). 신문은 스스로 지역정체성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과 동시에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입장을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고무, 또는 억제하고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보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중요하기 때문이다(구동회·박영민(역), 1994). 따라서 지역신문은 주민이나 여러 단체, 기관 등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

능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은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신문을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지역신문은 지역의 구성과 관련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신문을 통하여 스스로가 지역 구성의 주체로서 지역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을 통한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내포지역을 사례로 '제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지역의 구성과정을 홍성신문을 활용하여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선 오늘날의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정체성 개념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이를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개념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어서 지역정체성의 구성과정을 개념화한 분석틀을 토대로 내포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곧 내포지역의 구성과정을 홍성신문을 통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역적 형상의 발달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상징적 형상의 성립을 분석하는 단계로 홍성신문에 게재된 영역 및 상징과 관련된 기사들이 포괄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포지역의 구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체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리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내포지역의 구성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입장과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역으로서 내포지역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과정

1) 정체성 개념과 지역에 대한 적용

정체성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철학계에서 이루어진 정체성 개념 논의를 정리해 보면 '수적 유일성', '질적 동일성', 그리고 '나-동일성'으로 요약된다. 수적 유일성이란 '타자와 다름', 즉 개별성으로 하나가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것을 정체성의 논리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성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타자와 다름' 하나만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고려되는 것이 질적 동일성이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누구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또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정체성'은 항상 단일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 한 개인은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내적 동일성, 즉 '같음'의 의미이다. 개인은 질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적 정체성을 모두 동일한 자신의 것으로 통합시켜 인식할 때 '내적으로 다르지 않음'의 구조(나-정체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현재, 2005).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된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수적 유일성과 내적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 내부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위치를 근거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를 지배하는 우세한 문화의 흐름이나 이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구성된다고 본다. 정체성은 끊임없이 진보하는 과정이며 자아(주체)와 타자(객체)와의 교섭 공간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실천된다(Taylor and Spencer, 2004).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문화적 의미의 순환에 관여하는 정치적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볼 때 정체성은 확고한 범주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 확인되기 보다는 개인의 차별성을 포용하며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다.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정체성 구성의 메커니즘과 우월한 의미를 가진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Taylor and Spencer, 2004). '차이'는 오늘날의 사회와 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홀(Hall, S.)은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표현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주관성이 객관적인 역사나 문화와 결합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Hall, 1993). 개인의 의식이나 기억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은 다양하게 정체성의 기준, 또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 실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인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성형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입장과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Baldwin, 2004).

이상과 같은 철학과 사회학에서 논의된 정체성 개념을 지역에 적용해 보면, 먼저 지역정체성은 수적 유일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지역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유일성 그 자체를 지역정체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편성을 부정하는 배타적인 정체성이므로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이현재, 2005). 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자에 의한 인식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구성되기 때문이다(Calhoun, 1994). 수적 유일성은 정체성의 성립에 대하여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

지역정체성은 '수적 유일성'과 더불어 '내적 통일성'을 근거로 정의되고 설명될 때 비로소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등장한 형태 지역과 기능 지역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질적 정체성, 즉 동질성을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지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의 내적 동질성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의 질적 특성들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가속적으로 변질되고 다양화되어왔으며, 어떤 지표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체성은 고정되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인 것이다(Taylor and Spencer, 2004).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지역 범위로 묶이고 이러한 특성들을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지역과 같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역정체성이 성립된다. 따라서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특성들을 '지역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지역을 범위로 하는 다양한 질적 정체성의 형식적 통합은 곧 주민들이 지역 정체성을 인식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즉, 지역 정체성은 다양한 질적 정체성을 동일한 지역의 것으로 종합하고 판단하는 주민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은 보편적인 능력을 통하여 특수한 규범이나 특성을 추상화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통일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정체성을 구축한다. 지역정체성은 기존의 질적 정체성을 가감하여 내용적으로 종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임병조, 2007). 이처럼 정체성 개념을 지역에 적용해 볼 때 정체성 개념은 지리학의 탄생 이후로 발달해온 지역 개념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지역은 독특성과 질적 동일성, 그리고 다양한 질적 동일성을 하나의 지역의 것으로 통합하는 통합적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포괄적 개념이 정체성 개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적, 집단적 주관성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외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가 개입된다.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의 개발 계획과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주체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하는 의견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의 정체성을 설계하는 것이다(Amdam, 2000). 정체성의 설계는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즉 주관성과 권력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때 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합리적인 정치·경제적 토대를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최근 상황도 중앙집권적 정치권력구조가 지방 분산적으로 변화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였다. '다름(이질성)'에 합당한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정체성은 국가 중심의 정체성에 대하여 소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국가(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의 합치 여부를 떠나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다름(이질성)'의 개념이 개념된 지역정체성이말로 그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의 연구와 이해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발달, 지리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소 판매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실천적 주체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질적 정체성과 나-정체성은 각기 고유한 내적 시각과 실천적 능력의 결합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이현재, 2005).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주체의 자율성은 단순히 자신이 타인과 다름이 아니라 자아의 내적 정체성(같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주체, 즉 주민들의 실천적 역할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날 실용적인 측면에서 주체의 실천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접근하는 중요한 코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 제도화 과정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제도화란 영역적 경계와 상징, 제도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은 인지 공간으로서 영역적 형상이 발달하고, 주민의 의식 공간으로서 상징적 형상이 성립되며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간으로서 제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거쳐 성립이 된다. 제도화 과정은 반드시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재구성성을 지속하는 역동적 과정이다(Paasi, 1991).

먼저 영역적 형상의 발달 과정은 지역이 경계를 획득하고 공간구조에서 독특한 단위로 규정되는 과정이다. 경계의 핵심은 지리적 경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경계이다(Donnan and Wilson, 1999). 영역은 지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영역적 형상의 발달 과정은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사회적 현상이 지방화(localization)되는 것과 관련이 깊으며 권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징적 형상의 성립 과정에서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인식의 재생산을 촉진한다. 상징적 형상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가치나 역할, 특권, 또는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기능을 한다. 영역 이데올로기, 국가주의나 지역주의,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고 등과 같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또는 의미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Crocker and Quinn, 2004).

제도(institution)의 출현 과정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에 의해 표준화되고 통제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나 시설 등이 출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제도는 본질적으로 권력과 관련이 깊으며, 정부나 매체처럼 권력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Benwell and Stokoe, 2006). 또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실행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Agar, 1985). 여기에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 시설, 각종 민간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 등과 관련된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의 역할은 영역적 형

상이나 상징적 형상을 드러내고, 강화하며,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사고 체계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의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지역정체성은 장소뿐만 아니라 자원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이용된다. 지역의 구성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은 상징적, 물질적 필수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역정체성 담론을 여론화하고, 정체성이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실체 및 담론의 부분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 지역, 또는 주민을 통합하거나 분리, 배제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구성 과정에는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의 개념은 지역정체성의 구성과정, 곧 지역의 구성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제도화와 관련이 깊은 제도적 요소에는 경제, 행정, 언어, 매체, 문화, 권력관계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각기 지역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이해하며,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다(Allen *et al.*, 1998). 그러나 모든 제도적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의 형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며, 전파하고, 법제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한다.

3. 내포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1) '內浦' 관련 논의의 전개 과정과 홍성신문

'內浦'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충청남도의 차령산지 서북부를 통칭하는 지역이다. 고려 말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쓰였던 지명이지만 행정구역으로 묶였던 적은 한 차례도

없는 독특한 지역이다. 대체로 조선시대 홍주목 관할의 군현을 포괄하는 지역이었으므로 홍주목 관할지역과 공주목 관할지역이 충청남도도 통합된 구한말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급격하게 상실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화석화된 지명으로 남아있었다.

내포에 관한 관심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초기의 논의는 주로 차령산지 동남부에 위치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권특정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차령 서북부의 내포 역시 백제문화권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었다(내포문화연구원, 1997).

내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 1999년 충남발전연구원의 '내포지방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내포 관련 논의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오석민, 1999). 이는 내포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내포 관련 논의가 충청남도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내포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포에 관한 논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충청남도청 이전 문제였다. 2006년 2월 충청남도청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내포지역의 각 시·군들은 도청 유치를 위한 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도청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서 이후 확정될 때까지의 시기는 대략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와의 일치한다. 홍성신문은 내포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던 초기단계부터 내포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내포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즉, 홍성신문은 지역 내에서 일어났던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이전의 내포 관련 논의로는 당진군의 '당진향토문화연구원'이 발행한 '내포문화'가 유일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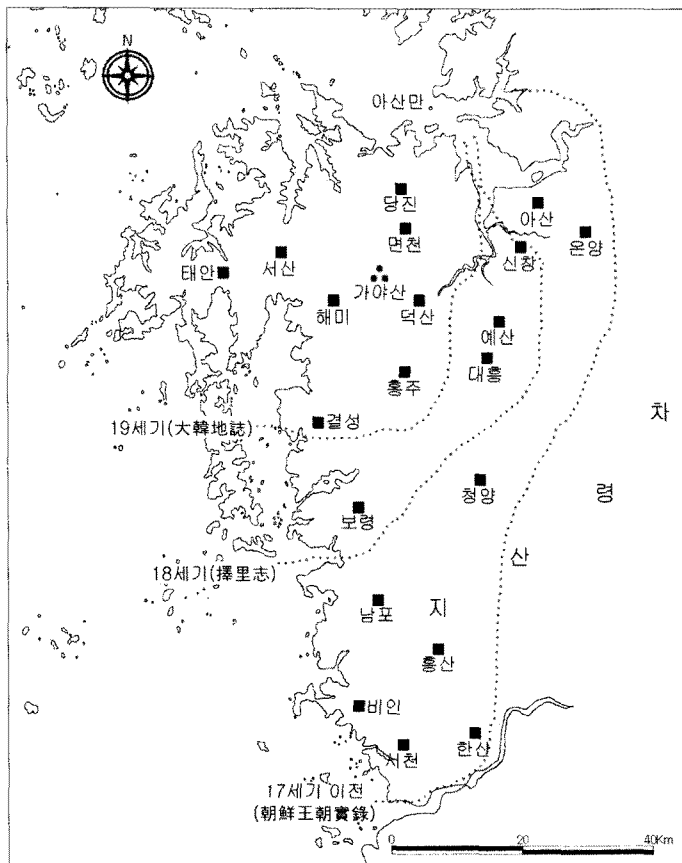


그림 1. 내포의 위치와 지역범위

이었다(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98~2005). 1990년대에는 예산군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내포문화연구원, 1997~1998).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성군이 '내포문화제'를 개최하고, 충청남도청 이전 논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포 관련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성신문은 많은 관련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사실들을 보도해왔다.

따라서 홍성신문을 통하여 우선 내포의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 상징적 형상의 성립에 대한 입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사실로서 단지 홍성신문의 입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홍성군민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포지역과 관련이 있는 여러 제도들의 입장과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어떠한 요소들이 내포지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포지역의 구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홍성신문은 중요한 제도로서 내포지역의 구성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제도로서의 입장은 주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하여 표출이 된다.

내포는 주민의 인식 여부가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내포라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내포지역의 구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민의 인지는 대중적 캠페인과 같이 의도적인 과정을 통하여 만

표 1. 홍성신문에 게재된 내포 관련 기사 내용 분류

구분	기사								칼럼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문화관련		도청 이전	내포 문화제	지역 브랜드	기타	내포 문화제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	내포 문화권 개발 내용 제안	지역 브랜드	기타
내용	홍성군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	충남도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	내포제 시조	지역 단체									
게재 횟수	14	6	4	11	3	43	4	10	12	2	1	3	7
	20		15										
	95								25				
120													

*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로 '내포'를 입력하여 제목 및 부제목에 '내포'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이다.
 홍성신문(<http://www.hsnews.co.kr>, 1999.10.18~2008.12.31)

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언론매체가 이를 자주 사용할 경우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Jordan *et al*, 1997). 그러므로 홍성신문은 '내포'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지명이 다시 널리 사용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홍성신문은 내포관련 기사를 모두 120회 게재하였는데(표 1 참조) 기사의 형식은 주로 사건기사형식이 많았고 칼럼형식은 내포문화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내포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주민의 행동을 호소하는 내용은 전체 기사 수에 비해 많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내포문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55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과 내포문화와 관련된 지역단체의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가 그 뒤를 이었다.

2) 영역적 형상의 발달에 관한 내용

홍성신문에서 내포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내포문화권개발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내포가 화석화된 지명이었기 때문에 내포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던 시기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내포를 알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홍성신문을 비롯한 내포지역 내 지역신문들은 공통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대 초반에는 내포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서천, 청양, 보령 등과는 달리 홍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포에 대한 정의에서 모두 지리적 중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성신문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내포지역에 대한 정의는 「擇里志」의 정의를 인용하여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해미 등 10개 고을을 일컬으며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오늘날의 홍성군을 비롯한 예산군, 청양군, 당진군,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등의 지역들을 대략 '가야산 주변의 열개 고을'에 해당하는 지역들로 규정하였다(숨어있는 진주 내포를 아시나요?, 2003.3.25; 내포사랑 큰 축제 막 올라, 2004.10.6). 내포의 영역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많지 않은 대신에 홍성신문은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군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된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과 충청남도청 이전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리로는 홍성군이 행정 및 군사 기능을 비롯하여 교통, 상업 등 옛 홍주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내포문화의 본고장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내포문화 중심지 홍성' 부각 시킨다, 2003.10.31; 옛 '홍주'가 다시 살아난다, 2007.1.19).

'옛 홍주가 되살아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홍주가 한 때 내포문화권의 핵심이었던 시기를 부각시키면서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충남도지사가 연두방문을 통해 '6개 시·군 통합 내포문화제를 제안' 하면서 '그 중심축이 홍성에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6개 시·군 통합 내포문화제 제안, 2004.3.4). 그러나 홍성을 내포지역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것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내포의 의미와 무관한 만남의 광장 및 테마 먹거리, 한우축제 등 오늘날의 충남서북부 지역 가운데에서 홍성이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제시되고 있다(내포지역 중심성 부각 중점, 2003.2.20).

같은 맥락에서 홍성의 한우를 '내포 한우'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내포한우' 브랜드 육성 박차, 2006.3.2) 홍성지역에 국립내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국립내포박물관 건립 추진, 2005.12.25)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홍성군은 '내포녹색체험프로그램'을 정부혁신국제박람회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데 이어서(내포녹색체험프로그램 국내외 관심 집중, 2004.7.14) 마침내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내포녹색체험' 혁신 우수사례 선정, 2004.10.25). 홍성군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포'를 내걸은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홍성을 내포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포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충청남도 내의 여타 지역과 내포를 구분함으로써 지역개발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역적 형상과 관련하여 홍성신문은 내포지역에서 홍성을 내포지역의 중심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내포지역의 영역 자체보다는 영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내포지역 내의 다른 지역을 누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상징적 형상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

(1) 문화적 상징

지역의 구성과정에서 상징적 형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는 구성원들과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독특한 집합적 정체성, 즉 지역 정체성을 갖게 한다(강희경, 2000).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징들을 '지역의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상징적 형상은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상징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다(Woodward, 2002).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징적 형상은 지역의 역사, 전통과 관련이 깊다. 내포지역에서도 역사나 전통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징들이 제시되고 있다. 홍성신문에서는 한성준 민속무용·결성농요 등의 민속문화, 홍주성 등 관방유적, 노은서원 등 유교문화유적, 만해 한용운 생가지·백야 김좌진 생가지·의병 등 항일운동 관련 유적, 불교문화·천주교 관련 유적·동학운동 관련 유적 등 종교문화유적, 문화축제 등이 상징적 형상의 내용들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시대적으로, 내용적으로 동질성이 크지 않은 유·무형의 문화유산들로서 특정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지나치게 이질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내포에 대한 관심이

표 1. 홍성신문에 게재된 상징적 형상의 내용

상징적 형상	민속문화	관방유적	유교문화·충절	항일운동관련	종교관련	기타
내용	한성준 민속무용 결성농요	홍주성	노은서원 최영 성삼문	한용운생가 김좌진생가 항일의병유적	불교유적 천주교유적 동학관련유적	지역축제 서민문화 영역이데올로기

충청남도 차원에서 시작된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이라는 광역 지역개발 계획으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이다(충청남도, 2004). 즉, 특정한 지역 이미지가 지역 내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온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짧은 시간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불교문화는 고려시대 이전의 문화유산이며, 민속 및 유교, 관방 유적 등은 조선시대와 관련이 깊고, 동학 및 항일운동 관련 유적은 주로 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형성된 문화들이다. 이처럼 문화요소간의 시대적 연결성은 떨어진다는 것은 내포문화를 규정하는 정확한 시대적 기준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5년 말부터 내포문화를 ‘서민문화’로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내포축제만의 색깔은 무엇?’, 2005.11.15)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적 이질성을 포괄하는 보다 큰 개념의 문화특성을 찾아냄으로써 다양한 상징을 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포문화의 정체가 모호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다 내포문화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차별화된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내포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내포지역의 문화를 독특한 서민문화로 규정하고 선조들의 생생한 삶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민문화와 근대사의 주요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내포박물관 건립 추진, 2005.12.25). 하지만 ‘서민문화’로서의 내포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이러한 시도는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찾아내고 부각시키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으나 내포문화의 성격이 ‘서민문화’로 규정되기 어려운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홍성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징적 형상의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내포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보다는 홍성군에 국한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문화요소에 대한 접근이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이라는 지역개발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

획이 여러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권 개발계획으로 수립된 반면 실질적인 추진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005년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되자 홍성군이 ‘내포의 변두리 전략’을 우려하면서 계획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홍성군 내포의 변두리 전략-내포권 개발사업 총 투자액 10% 불과, 2005.2.3). 개발될 문화요소의 종류와 배정된 예산이 인접한 예산군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인데 이러한 입장에는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했던 예산군(2004년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기대, 무한정보신문, 2004.1.5)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내포문화의 중심이라는 구호가 민망할 정도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2) 지역축제

지역축제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축제는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형상의 요소이며, 동시에 제도적으로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제도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2004년부터 홍성군에서 개최되고 있던 여러 개의 지역 축제를 통합하여 내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내포문화제가 시작되면서 홍성신문에는 축제 관련기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는 문화제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내포지역과 관련된 일반 기사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내포문화제가 내포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홍성신문을 통하여 상징적 형상의 요소로서 내포문화제의 특징과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홍성군은 내포문화제 계획 단계에서 주민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비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모으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3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인 82%가 내포문화제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축제의 필요성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찾고 있다(60%). '문화정체성의 확립'에도 29%가 응답하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포문화 정립이 미흡하고 타 지역과 내용이 유사한 원인 등으로 내포문화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0% 정도에 이르렀다. 중점 재현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적인 면 54%, 사회·경제적인 면 25%, 정치·역사적인 면 16% 등을 각각 꼽았다. 축제 도입 프로그램으로는 내포지역 씨름대회가 가장 많았고 홍주목사 행차 거리 퍼레이드, 홍주의병 재현, 보부상 재현행렬, 내포지역 시·군 농악 경연대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통혼례 재현, 풍어제 재현, 김좌진장군 청산리 전투 재현, 최영 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한성준 춤 공연 등이 제기되었다.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가 참여의사를 밝혔다(내포문화제 설문조사, 82% 긍정, 2004.4.1).

홍성군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포문화제 계획에 착수하였는데, 내포사랑큰축제를 '인근 시·군의 문화제를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의 대표 축제로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내포문화 중심지 홍성' 부각시킨다, 2003.10.31).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밴드와 영화배우, 유명 예능인 등을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축제를 전국적 스케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홍성 내포사랑큰축제 홍보대사 위촉, 2004.9.8).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홍성군이 내포지역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내포문화제를 통하여 '홍성군이 내포문화의 본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내포권의 중심지임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04년 개최된 '2004 홍성 내포사랑큰축제'는 슬로건을 '내포의 핵, 홍성을 아십니까?'로 정하여 홍성을 내포의 중심으로 주장하기 위한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내포의 핵 서민축제, "어깨춤 들썩", 2004.8.17).

홍성군은 내포사랑큰축제를 통하여 홍성군을 넘어 내포지역 모든 주민들이 축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다(내포사랑큰축제 막 올라, 2004.10.6).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홍성신문은 다른 지역을 끌어들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내포사랑큰축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05.8.22). 군의회는 평가 역시 '집안잔치로 전략'하였음을 질타하고 있다(내포시·군 외부인 참여 정책 주문-군의회 내포축제 집안잔치 전략 질타, 2004.12.16).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2회 축제에서는 '천주교 성지 연합미사'를 프로그램으로 배치하여 인근 시·군 천주교 신자 수 천 명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홍성신문은 이를 인근 지역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졌던 홍성 천주교 순교지를 성역화하는 계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내포축제가 홍성만의 잔치가 아닌 명실상부하게 내포를 아우르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내포축제, 질박한 향토 멋 아름답게 승화, 2005.10.4). 2006년 내포사랑큰축제에서는 다른 지역의 민속공연단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홍성신문은 여기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내포축제는 내포다워야 한다, 2006.12.2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내포사랑큰축제를 발판으로 홍성지역의 성격을 내포지역의 중심으로 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포지역 6개 시·군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볼거리 없다-내포축제 빈축, 2007.10.26). 실제로 홍성신문은 내포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홍성군 특유의 지역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가장 향토적인 것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홍성내포축제 성황리에 끝나, 2005.10.24). 홍성신문은 내포축제만의 색깔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서민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화차원에서 내포 전체를 포괄하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현상적인 지역개발 차원에 1차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내포축제만의 색깔은 무엇?", 2005.11.15).

(3) 영역이데올로기

문화적 상징과 지역축제에 관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내포의 중심은 홍성'이라는 영역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상징적 형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적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포지역 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징적 형상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내포라는 지역은 여러 시·군을 포괄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지역 단위는 단일 시·군이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내포가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 형상의 성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4) 제도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

홍성지역에는 내포지역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출현하고 있다. 관공서를 비롯하여 향토연구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이장단회의, 체육회 등이 대표적인 요소들로서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포지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홍성신문은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내포지역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제도로서 홍성신문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통하여 내포지역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 요소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제도로서의 홍성신문

우선 홍성신문은 지속적으로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과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홍성신문의 이러한 입장은 이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히 도청이전에 대한 기사가 단일 주제로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홍성신문은 2004년 9월 내포사랑큰축제 직전에 유

명밴드 초청공연을 주최, 주관하였는데 그 이유를 '내포문화제를 통한 충남도청 유치'를 위한 사전포석'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내포지역 주민을 홍성으로, 2004.9.30). 이는 지역 언론과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지역 여론을 이끄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2007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내포한우를 비롯한 홍성의 농산물을 '내포천애'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표류하는 홍성 브랜드 '내포천애', 2007.6.1; '내포' 홍성의 브랜드로 가능성 있나?, 2007.8.8; 내포천애 출발부터 삐걱, 2008.3.4; 내포천애, 이대로 좋은가?, 2008.3.6; 홍성군 브랜드 정책, 엇갈린 두 박사, 2008.10.15).

이와 같은 입장의 선화는 충남도청이 홍성군·예산군 접경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을 부각시키는 전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충청남도청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내포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홍성신문은 기사를 통하여 이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을 넓게 아우르는 '내포'라는 지명이 홍성의 브랜드파워(Brand-Power)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내포'라는 이름은 홍성뿐만 아니라 보령, 청양, 예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내포'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파워는 약해 질 수밖에 없다 ... '내포'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충남도청 이전지 결정과 맞물려 있다 ... 이제 '내포'라는 전술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왔다 ... '내포'라는 전술에서 벗어나 옛 '홍주'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2007.8.8).

광천의 김 모 씨는 "내포 미련을 버리고 으뜸 홍성을 알리는 지역축제로 이끌어 현실성 있는 축제로 성공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로 적극 알리는 큰 축제도 좋지만 규모 있고 쓸모 있게

만들어 지역민이 적극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 "내포 위인 퍼포먼스' 라는 타이틀을 보더라도 홍주인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내포' 라는 틀에 맞추기에 급급했다"(내포사랑큰축제, 주제가 없다-축제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2008.9.29).

(2) 관공서

2004년 이후에는 내포지역 시장·군수회의(내포권 시장·군수 원활한 사업추진 결의, 2004.12.29)나 내포권 의회 합동 연수(홍성군의회 주관 내포권의회 합동 연수, 2005.1.11) 등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내포문화권개발과 관련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시도가 홍성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4년에 이르면 예산 출신의 도의원이 '예산·홍성 지역이 교통의 요지로서 내포권의 중심'으로 도청 이전의 적지임을 주장하고 있다(예산·홍성지역은 내포권 중심, 2004.8.23). 이러한 입장은 내포 전역의 연합을 통하여 도청을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초기의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되면서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예산군과 홍성군을 내포지역의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포가 지역 간의 연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민간단체

홍성군은 2008년부터 홍성내포사랑큰축제의 주관 단체를 홍성군에서 민간단체인 홍성문화원으로 이양하였다(내포사랑큰축제 민간주도 힘찬 출발, 2008.7.23). 홍성문화원은 축제를 통하여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성군은 향토연구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내포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은 홍성 향토사를 내포지역에 전파하는 것을 2005년 새해 목표로 제시하였다(홍성향토사 내포지역에 전파, 2005.1.28). 홍성의 향토연구단체 역시 내포의 중심으로 홍성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던 것이다. 나아가 홍주향토문화연구회는 내포문화연구연합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로 2005년 10월 연락사무소를 홍성에 두고 홍성을 중심으로 교류 및 연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불교문화, 천주교 순교성지, 동학농민운동, 의병 및 독립운동사, 문화축제 등 공통된 역사·문화적 연구과제에 대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합의했다(내포문화연구연합회 정관 바꿔 재시동, 2005.10.31).

관공서의 움직임과 같은 맥락으로 홍성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내포지방도청유치추진위원회'도 인근 예산군, 청양군, 당진군, 서산시를 비롯 8개 시·군에도 청유치 추진 협조를 요청하였다(도청이전 기획단 곧 가동, 1999.10.18). 초기에는 이처럼 충남도청을 내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예산군을 비롯하여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당진군 등 내포지역 자치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도청이전 기획단 곧 가동, 1999.10.18; 충남도청은 내포지방으로, 2002.8.3; 도청이전, 내포지방과 연계 추진, 2002.9.18). 1차적인 목표로 충남도청을 '차량산지 서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잡고 내포지역 내 시·군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는데, 도청 이전에서 충청남도 내의 다른 지역과 경쟁함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차량 서북부 지역을 내포로 통합함으로써 경쟁 상대를 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같은 시기 예산군의 움직임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양군과 아산시 등 인접 시·군이 독자적인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도청이전, 내포지방과 연계 추진, 2002.9.18).

이외에도 홍성군은 지역 내 문화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내포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홍성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지역문화단체가 '내포'라는 이름을 걸고 있거나 행사 제목에 '내포'를 넣는 방식으로 내포에 대한 접근을 내포지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는 전국남녀내포제시조경창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전국남녀내포제시조경창대회, 2000.11.16; 내포제시조 경창 금상 강창수씨, 2001.11.29; 나라사랑 정신 내포제 시조

에 답아, 2003.10.31) 이는 내포지역 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다.

한국미술협회홍성지부에서도 매년 개최하는 전시회의 명칭을 ‘내포지역현대미술제’로 정하여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내포지역현대미술제 21~25일 홍주문화회관전시실, 2002.12.13; 내포사랑 미술세계 ‘감동의 울림’, 2005.3.23). 홍성예총은 ‘2003 홍성문화제’에서 ‘홍성을 내포중심 문화도시로’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홍성을 내포중심 문화도시로-홍성예총 2003 홍성문화제, 2003.11.7).

종교단체인 홍성기독교연합에서는 내포사랑큰축제 성공 기원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홍성기독교연합 내포축제 성공기원 기도회, 2004.10.7) 또한 구항면 이장단과 체육회가 각각 내포축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구항 이장단·체육회 내포축제 협의, 2005.9.12) 심지어는 ‘대정초등학교 전교생이 내포 축제 홍보에 앞장섬’(대정초 전교생 내포축제 홍보 앞장서, 2004.10.12)으로써 초등학교생들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인, 학교, 이장단 등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내포문화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내포지역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일례로 홍성군은 2006년 내포사랑큰축제 개최 전에 내포문화(서민문화)에 맞는 프로그램(공연, 시연, 체험 등)이나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홍성브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내포축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군, 26일까지 공모 접수, 2006.5.10). 홍성신문은 이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시도에 홍보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물론이다. 홍성군은 이처럼 지역축제를 매개로 관과 민간단체가 호흡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으며 지역 언론이 매개체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정체성 개념은 주관성과 차이, 권력관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한 개념이다. 지역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도화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도화란 의식공간으로서의 영역적 형상과 인지공간으로서의 상징적 형상, 그리고 이를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지역신문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도화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포’는 해방 이후 거의 쓰이지 않는 화석화된 지명으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개발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새롭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과 충청남도청 이전이라는 중요한 지역개발 사업이 등장하면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홍성군은 전통적인 내포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지리적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로서 내포 지역의 구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내포지역의 구성과 관련된 홍성군의 움직임은 홍성신문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홍성신문은 ‘내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내포’, 또는 ‘내포문화권’과 관련하여 영역 이데올로기 및 특정한 지역 이미지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역적 형상의 발달과 관련하여 홍성군 내의 여러 제도들은 내포의 전체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홍성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내포지역에 대한 관심이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과 충청남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상징적 형상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민속, 종교, 관방, 항일, 유교 등 역사·문화적 상징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축제, 영역이데올로기 등이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문화적 상징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권인 백제문화권이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할 때 시대적 동질성이 약하다는 점은 문화권의 성립에 있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포문화를 '서민문화'로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격규정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홍성신문을 통해 나타나는 상징적 형상으로 가장 잘 형상화된 것은 지역축제인 '홍성내포사랑큰축제'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내포의 상징으로서 지역 내·외에 내포지역을 인식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홍성신문은 내포와 관련된 기사 가운데 지역축제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하여 지역축제의 방향과 의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포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을 부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을 강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제도의 출현 과정은 홍성신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홍성군·군의회 등의 관공서, 홍주향토문화연구소 등의 향토연구단체, 홍성문화원·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한국미술협회홍성지부·홍성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홍성기독교연합 등 종교단체,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협의체 등 다양한 제도들이 내포지역의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포'를 내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내·외에 내포를 알림으로써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내포 전 지역을 포괄하는 활동보다는 궁극적으로 '내포의 중심으로서의 홍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내포지역에서는 제도화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성신문은 이 과정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의 구성은 완성단계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내포지역 내에서 홍성군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내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개발 논의는 통합적 사고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지역에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군 단위로는 외부인의 주목을 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군 단위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적 인프라의 변화 없이는 내포지역의 영역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지역의 구성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여러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개념을 지역지리학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개념은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정부분 타당성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신문은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근거자료임을 알 수 있다. 지역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조류 속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역계획 등 현실적인 요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세밀하고 범위가 넓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0, "지역사회의 상징 구성 모형으로 본 지역 정체성," 사회와 문학, 12, 97-120.
- 구동희·박영민(譯),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of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lackwell), 한울.
- 김석훈, 1999, "한국과 미국의 지역신문의 역할," 경상대는

- 문집, 37, 경상대학교, 119-142.
- 김용웅 · 차미숙 · 강현수, 2003, 지역발전론, 한올아카데미.
- 내포문화연구원, 1997(창간호)~1998(제3호), 계간 내포문화정보.
-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88(창간호)~2005(제17호), 내포문화.
- 오석민, 1999, “내포지방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지리학적 연구 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정훈, 2008, “軟性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서 장소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3(6), 873-893.
- 이현재, 2005,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 연구, 71(1), 263-292.
- 임병조,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identity)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582-600.
- 정근식, 1997,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정근식, 김병인, 박명희, 홍성흡, 윤희면, 전형택, 추명희, 오미란, 2004,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장성 향릉 연구, 경인문화사.
- 충청남도, 2004, 내포문화권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 玄采(譯編), 1901, 大韓地誌, 廣文社.
- 홍성흡, 2001, “지역활성화 운동과 지역정체성의 형성 및 분화양상-일본 湯布院町の 핵심 활성화운동 집단의 운동전략과 역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 3(2), 85-126.
- 擇里志, 李重煥, [이익성(역), 1993, 을유문화사].
- 朝鮮王朝實錄(英祖實錄, 卷45, 13年 8月 癸未條).
- Agar, M., 1985, Institutional discourse, *Text*, 5(3), 147-168.
- Allen, J., Massey, D., and Cochrane, A., 1998, *Rethinking the Region*, London: Routledge.
- Amdam, J., 2000, Confidence building in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Some experience from Norway, *European Planning Studies*, 8(5), 581-600.
- Baldwin, E., Longhurst, B., McCracken, S., Ogborn, M., and Smith, G.,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Pearson Education, Harlow.
- Benwell, B. and Stokoe, E., 2006, *Discourse and Identity*,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Calhoun, C.(ed.),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 Crocker, J. and Quinn, D. M., 2004,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devalued identities, in Brewer, M B. and Hewstone, M.(ed.), *Self and Social Identity*, Malden:Blackwell.
- Donnan, H. and Wilson, T. M., 1999, *Borders: Frontiers of Identity, Nation and State*, Berg, Oxford.
- Hall, S., 1993, Minimal selves, in Gray, A. and McGuigan, J.(eds.), *Studying Culture*, Edward Arnold, New York.
- Jordan, T., Domosh, M., and Rowntree, L., 1997, *The Human Mosaic-A Thematic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7th edition, Longman, New York.
- Paasi, A., 1991, Deconstructing region:notes on the scales of spatial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239-256.
- Taylor, G. and Spencer, S.(ed.), 2004, *Social Identities: Multidisciplinary Approach*, Routledge, Oxon.
- Woodward, K., 2002, Concepts of identity and difference, in Woodward, K.(ed.), *Identity and Difference*, Sage Publication, London.
- <http://www.hsnews.co.kr>(홍성신문)
- 무한정보신문, 2004.1.5
- 교신: 임병조, 330-2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길 천안월봉고등학교(이메일: limbkh@hanmail.net, 전화: 041-622-5195)
- Correspondence: Byoung-Jo Leem, Cheonan Wolbong Highschool, 12th street, Buldang-dong, Cheonan, Chungnam Province, 330-230, Korea(e-mail: limbkh@hanmail.net, phone: +82-41-622-5195)

최초투고일 09. 02. 26
수정일 09. 03. 13
최종접수일 09. 03. 16